

歐陽修 史書의 文章 特徵 研究

2. 歐陽修의 史書 編纂要旨와 體例

李承信*

< 목 차 >

1. 들어가며
2. 歐陽修의 史書 編纂要旨
 - (1) 春秋筆法の 계승
 - (2) 正統論의 주장
3. 歐陽修의 歷史記述의 실례
 - (1) 實證을 통한 誤謬의 교정
 - (2) 《新唐書》와 《五代史記》의 體例
 - (3) 簡略한 敘述
4. 나가며

1. 들어가며

중국의 正史 ‘二十四史’ 가운데 歐陽修 일인이 참여하고 編修한 것이 二部를 차지하는데, 《新唐書》와 《新五代史》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의 《舊唐書》와 《舊五代史》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正史로 인정되어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여 歐陽修의 中國史籍史上的 공헌도를 짐작케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歐陽修의 史家로서의 면모를 기본으로²⁾ 그가 편찬한 史書의 특징과 史書 안에 발휘된 그의 뛰어난 文才에 주목하고자 한다.

* 韓國藝術綜合學校 講師.

1) 근대에 이르러 《元史》의 내용을 보정하여《新元史》가 나오게 되면서 ‘二十五史’로 칭하기도 한다.

2) 줄고, <歐陽修의 史家的 면모>, 《중국어논문역총간》, 제12집, 2004.1 參照.

(1) 春秋筆法の 계승

歐陽修는 그의 많은 名文 가운데에 春秋筆法の 계승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史書를 편찬하는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春秋》에 대해 正名하고 실정을 구하며 시비를 분별하고 선악을 밝히는 것이라 칭송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더욱 근엄하고 바른 것은 바로 經文이 근엄하므로 후대에 신뢰를 주기 때문이라 하였다.³⁾ 그는 또 《春秋》의 經의 의미가 평이하야 人情에 바탕을 둔 원칙을 지니고 있으며 고상한 이론을 발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그를 계승한 劉攽이 ‘深言經旨’를 추구한 것과는 다르다. 歐陽修는 《春秋》를 매우 중시하였고 이 때문에 꼭 그 본뜻을 직접 연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동시에 三傳에 대해서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그는 고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三傳 중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없어 신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증명하였다.⁴⁾ 그리고 당시의 학자들이 《春秋》의 經文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三傳을 과신하는 것을 비판하였다.⁵⁾ 공자의 《春秋》가 실제로는 너무 간략하여 기타 연관된 자료를 보충하여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三傳의 역량 때문이다. 따라서 歐陽修가 그것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傳注書들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하며 취사선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⁶⁾ 만약 傳의 해설을 믿을 수 없다면 經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히 이해

3) 《歐集·春秋論·中》: 正名以定分, 求情而責實, 別是非, 明善惡, 此《春秋》之所以作也.……《春秋》辭有同異, 尤謹嚴而簡約, 所以別嫌明微, 慎重而取信, 其于是非善惡難明之際, 聖人所盡心也.

4) 《歐集·春秋論·下》: 曰, 傳聞何可盡信? 公羊、穀梁以尹氏卒爲正卿, 左氏以尹氏卒爲隱母, 一以爲男子, 一以爲婦人, 得於所傳者蓋如是. 是可盡信乎?

5) 《歐集·春秋論·上》: 若公羊高穀梁赤左丘明三子者, 博學而多聞矣, 其傳不能無失者也. 孔子之子經, 三子之子傳, 有所不同, 則學者寧事經而從傳, 不信孔子而信三子, 甚矣其惑也!

할 수 없는데, 歐陽修는 이 점에서 바로 聖人의 의지는 經文에 있으므로 經文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⁷⁾

이러한 사상을 근간으로 그는 《新唐書·本紀》에서 스스로 이 史書가 《春秋》의 필법에 합치된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고⁸⁾ 《五代史記》 역시 인물의 전형을 논하여 우열의 차서를 정하고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거와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褒貶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⁹⁾ 그리고 史書 편찬 후 친구인 梅聖俞에게 서신을 보내 스스로 춘추의 필법에 따랐음을 확신하고 만족했다.¹⁰⁾ 歐陽修는 史書 편찬 과정에서 인물 포점은 물론 시비와 선악을 밝혀 후대에 권계로 삼을 것을 표달하였다.¹¹⁾

다음은 歐陽修가 역사를 기술할 때 사용한 춘추필법의 실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는 宋代 이래 다양한 각도와 방법으로 밝혀지지 않거나 미비한 점들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활발한 풍조에 기인하며 발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매우 세련되고 간이한 필치로 정확하고 예리하게 서술하려는 歐陽修의 의도와 직결된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二十二史札記·卷二十一·歐史書法謹嚴》에 실린 내용을 해석하여 《新唐書》에 쓰인 춘추필법의 몇 가지 실례를 <표1>로 정리하여 보았다.

6) 《歐集·春秋或問》：或問，子於隱攝、盾、止之弑，據經而廢傳，經簡矣，待傳而詳，可廢乎？曰，吾豈盡廢之乎？夫傳之于經，勤矣，其述經之事，時有賴其詳焉，至其失傳，則不勝其戾也。其述經之意，亦時有得焉，及其失也，欲大聖人而反小之，欲尊經而反卑之，取其詳而得者，廢其失者可也。嘉其尊大之心可也，信其卑小之說不可也。

7) 《歐集·春秋或問》：經不待傳而通者十七八，因傳而惑者十五六。日月，萬物皆仰，然不為盲者明，而有物蔽之者，亦不得見也。聖人之意，皎然乎經，惟明者見之，不為他說蔽者見之也。

8) 《新唐書卷四則天紀》：合于《春秋》之法。

9) 《歐集·卷十八·答李淑內翰書》：銓次去取，須有義例，論議褒貶，此豈易當。

10) 《歐集·書簡·卷十六·與梅聖俞》：極有義類，須要好人商量。此書不可使俗人見，不可使俗人不見。

11) 《歐集·附錄卷五·事迹》：其于《五代史》，尤所留心，褒貶善惡，為法精密，發論必以嗚呼，曰此亂世之書也。其論曰，昔孔子作《春秋》，因亂世而立治法，余述《本紀》，以治法而正亂君。此其志也。

합의	원문	출처
兩相攻曰攻	孫儒攻楊行密于揚州	梁紀
以大加小曰伐	遣劉知俊伐岐	梁紀
有罪曰討	命李嗣源討趙在禮	唐紀
天子自往曰征	東征慕容彥超	周紀
攻戰得地，易得曰取	張全義取河陽	周紀
攻戰得地，難得曰克	龐師古克徐州	周紀
以身歸曰降	馮霸殺潞將李克恭來降	周紀
以地歸曰附	劉知俊叛附于岐	周紀
立後得其正者，曰以某妃、某夫人爲皇後	立淑妃曹氏爲皇後	唐明宗紀
立不以正者，曰以某氏人爲皇後	立劉氏爲皇後	唐庄宗紀

<표1>

이상과 같이 구양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 《春秋》의 ‘微言大義’의 수법으로써 포폄하였다.

(2) 正統論의 주장

歐陽修는 원시자료를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야만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는 태도를 주요 원천으로 삼아 역대 왕조의 정통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송왕조는 史學이 크게 흥성한 시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를 가다듬고 개인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등 역사 활동이 활발한 시대였다. 이는 인쇄술의 발달 등으로 널리 전파되었고 각종 체재의 역사서들이 분분히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史學의 흥성은 역사가들이 역사를 편찬할 때 자각적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그 중 正統論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사관이였다.

정통론은 일개 사가의 역사의식을 넘어서 사가들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시대 배경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게 한다. 송대에 정통에 대한 해석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북송의 정통론은 歐陽修를 중심으로, 남송의 정통론은 朱熹를

중심으로 한다.

정통론이 송대에 일어나긴 하였지만 그 사상의 연원은 매우 깊다. 《春秋·公羊傳》의 大一統觀念과 鄒衍의 五德終始說로 귀결되는데, 전자는 동시대에 정통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수평적 정통관을 주장하며 그 외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후자는 金, 木, 水, 火, 土 등의 자연의 역량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다는 수직적 정통관을 주장한 것으로 종적 관계 하에 전후 왕조가 계승되며 천명을 받아 오행의 순리에 의거하여 왕된 자가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송대 이전에는 정통관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이전의 논쟁의 초점이 한 왕조나 일개인의 정통 여부에 치중하고 그 원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정통에 관한 논의는 송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 원인은 五代 분란의 시기에 송 왕조가 흥기하였으므로 자연히 그 혼란을 거울삼게 된 데 있다. 정통론이 견지하는 대통일의 국면이란 군신간의 관계로서 사방에서 할거하는 형세와 忠義가 사라진 사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춘추학의 흥성을 들 수 있는데, 송대에는 특히 《春秋》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春秋》의 주된 내용은 尊王攘夷였다. 이러한 풍조는 당시 사회와 학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정통론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게다가 송대의 의론하는 풍조와 역사를 다듬는 작업 역시 정통론의 형성과 관계가 크다.

예를 들어 歐陽修의 《新唐書》와 《新五代史》, 司馬光의 《資治通鑑》, 朱熹의 《通鑑綱目》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모두 정통 원류를 분별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송대에 민족의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외족의 침입이 빈번하였으며 조정에서는 讀書人을 중시하고 사대부의 정치표방과 충의의 풍기를 농후하게 표방하였는데, 이는 정통론 형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¹²⁾ 북송 시기 정통 사상의 효시는 《冊府元龜》로 볼 수 있다. 이 책의 정통 관념은 미신적 요소가 충만하여 오행 학설을 기초로 역대 정통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¹³⁾

그러나 歐陽修는 이러한 미신사상에 극력히 반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게 하고자 하였다.¹⁴⁾ 太宗 때 薛居正 등에게 명하여 《五代史》를 편찬케 하고 또 李昉 등에게 오대의 연호를 편성하게 하였는데, 歐陽修는 李昉이 梁나라를 정통이 아닌 거짓으로 다루면서도 本紀에 집어넣었고 조정에서 사용하는 天曆에서도 梁나라의 建號를 빼어놓은 데 대하여 서로 모순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지닌 역사 서술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며 治亂의 자취가 불분명한 것을 인식하고 정통론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歐陽修가 인정한 정통은 천하의 바른 것에 처하여 천하를 하나로 합해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堯, 舜, 夏, 商, 周, 秦, 漢, 唐이 이러한 표준에 맞는 나라이고 西晉과 隋는 바름을 얻지 못하고 천하를 통일한 나라로 역지로 정통이라 한 것이라 했다.¹⁵⁾ 그리고 정통은 반드시 계승되며 단절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단절되는 상황에서 거짓으로 그것이 이어지므로 그에 대한 의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의 正統에 대한 立論은 道德의 바름에 그 기초를 두며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정통의 지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秦의 지위 문제에 대하여 漢나라 사람들이 秦을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사사로운 편견으로 그러한 것이라 여겼다. 秦始皇이 禮義를 멸하고 법을 가혹하게 한 포악한 군주였으나 秦이 정통을 이어받은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¹⁶⁾ 즉 夏나라와 商나라가 桀王과 紂王의 포악함 때문에 그 정통성을 잃지는 않았던 것과 같이 秦나라 역시 始皇 일인으로서 그 정통을 잃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五行의 설에 의하여 秦을 정통이 아닌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다.

晉 이후 역사가들은 魏나라의 지위에 대하여 쟁론하였는데, 歐陽修 역시 이에 대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魏나라와 비슷한 경우로 五代의 梁나라가 있는데, 歐陽修는 이 두 나라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私見에 의한 것이라 했다. 《正統論下》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4) 《歐集·正統論上》: 自古王者之興, 必有盛德以受天命, 或其功澤被于生民, 或累世積漸而成王業, 豈偏名于一德哉? 至於湯武之起, 所以救弊拯民, 蓋有不得已者.

15) 《歐集·正統論下》: 正統有時而絕也. 故正統之序, 上自堯舜, 歷夏商周秦漢而絕, 晉得之而又絕, 隋唐得之又絕. 自堯舜以來, 三絕而復續, 惟有絕而有續, 然後是非公, 予奪當, 而正統明.

16) 《歐集·正統論下》: 夫始皇之不德, 不過如桀紂, 桀紂不廢夏商之統, 則始皇未可廢秦也.

12) 陳芳明, <宋代正統論的形成背景及其內容>, 《食貨月刊》第一卷, 1971, 378-401쪽 참조.

13) 《冊府元龜·卷一帝王部總序》: 昔雒出書九章, 聖人則之, 以爲世大法, 其初一曰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帝王之起, 必承其王氣.

오대에서 나라를 얻은 자는 모두 적란의 군주이다. 그런데도 유독 양나라만 거짓이라 하고 축출하는 것은 양나라를 미워하는 자의 사사로운 의론이다. 唐은 僖公과 昭公 이래 사해에 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사방 변진의 군대가 일어나 이윽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병합되고 약자는 강자에게 복속되었다. 그 중 특히 강한 자로 朱氏는 梁나라로 李氏는 晉나라로 함께 일어나 唐을 몰래 노렸다. 그런데 梁나라가 먼저 그것을 얻었다. 이씨는 그로 인해 명도적을 토벌한다는 이름을 빌려 梁나라와 중국을 다투어 결국 그것을 얻어내었으니 그 형세가 梁나라를 거짓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뒤를 계승하는 자들이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 梁나라에게 이러한 거짓의 이름을 홀로 덮어쓰게 하였다. 梁나라가 진실로 정통이 되지 못하면 唐나라, 晉나라, 漢나라, 周나라가 어찌 정통이 되겠는가?¹⁷⁾

歐陽修가 이처럼 魏나라와 梁나라를 몰아세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한 비평을 하였다. 그러자 그는 《魏梁解》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

내가 정통을 논하고 위와 양이 거짓이 아님을 밝혔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혹은 내가 크게 역사의 중지를 잃었다고 비난하고 위와 양이 모두 찬탈하고 시해하는 악함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무릇 후세에 그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매몰시키지 않는 데에 있다. 실제 일찍이 군주가 되어 그 군주가 된 것을 기록하고 사실 찬탈했다면 찬탈했다고 기록한다. 각각 그 사실을 전하여 후세로 하여금 믿게 한 것이다.¹⁸⁾

張方平이 東晉과 北魏를 정통이라 놓았지만 歐陽修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晉나라 왕실이 남쪽으로 옮긴 후 명분만 있고 실제로는 망한 것이므로 周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옮긴 사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東晉은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¹⁹⁾ 北魏가 비록 강성한 세력이었지만 예로부터 것처럼 강대한 세력은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정통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게다가 그들은 이민족으로 나라를 소유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歐陽修는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²⁰⁾ 이러한 그의 정통론은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章望之와 蘇東坡의 변론을 야기하였다. 章望之는 정통론 외에 霸統을 주장하였는데, 蘇東坡의 반박을 당하게 되고 蘇東坡는 《後正統論三首》 등을 써서 歐陽修와는 조금은 상이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그의 관점을 계승하였다.²¹⁾

이상으로 구양수가 당시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인 정통론을 자신의 많은 문장 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歐陽修의 歷史 記述의 실례

(1) 실증을 통한 오류의 교정

歐陽修가 기존의 史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新唐書》와 《新五代史》를 새로 저술한 것만으로도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살필 수 있다. 經을 존중하고 經義를 천명할 것을 주장하며 宋學을 주도하고 사실을 고증하는 데 치중한 歐陽修의 공헌은 특히 史學 방면에서 매우 컸다. 歐陽修는 六經은 신뢰하였지만 古史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대가 오래된 것과 각종의 전설과 관련하여 그 진위를 고증하지 않고 따르며 여러 설법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많은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정확한 사료적 근거와 증거가 없는 사실을 꼬

17) 五代之得國者, 皆賊亂之君也. 而獨僞梁而黜之者, 因惡梁者之私論也. 唐自僖昭以來, 不能制命于四海, 而方鎮之兵作, 已而小者并于大, 弱者服于強. 其尤強者, 朱氏以梁, 李氏以晉, 共起而窺唐, 而梁先得之. 李氏因之借名討賊, 以與梁爭中國而卒得之, 其勢不得不以梁爲僞也. 而繼其後者, 遂因之使梁獨被此名也. 夫梁固不得爲正統, 而唐晉漢周何以得之?

18) 《歐集·魏梁解》: 予論正統, 辨魏梁不爲僞, 議者或非予大失春秋之旨, 以謂魏梁皆負篡弒之惡.……夫欲著其罪於後世, 在乎不沒其實, 其實嘗爲君矣, 書其爲君, 其實篡也, 書其篡, 各傳其實而使後世信之.

19) 《歐集·正統論下》: 自愍帝死賊庭, 琅邪起江表, 位非嗣君, 正非繼世. 徒以晉之臣子, 有不忘晉之心, 發于忠義而功不就, 可爲傷已. 若因而遂竊正統之號, 其可得乎?

20) 《歐集·正統論下》: 今爲魏晉說者, 不過曰功多而國強耳. 此聖人有所不與也. 春秋之時, 齊桓晉文可謂有功矣, 吳楚之僭, 迭強于諸侯矣. 聖人于春秋所尊者周也, 然則功與強, 聖人有所不取也.……當堅之時, 自晉而外, 天下莫不爲秦. 休兵革, 興學校, 庶幾刑政之方, 不幸未幾而敗亂. 其又強者曰魏, 自江而北, 天下皆爲魏矣, 幸而傳數世而後亂. 以是而言, 魏者, 纔優于符堅而已, 豈能干正統乎?

21) 蔡世明, 《歐陽修的生平與學術》(文史哲出版社, 1980), 113쪽 參照.

집어내어 오류를 지적하고 확실한 실증을 통해서 잘못된 바를 바로 잡는데 힘썼다.

예를 들어 역사가들은 司馬遷을 추승하였으나 歐陽修는 사료의 수집을 중시하고 《史記》에 기재된 上古시대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하였다. 《史記》의 설법에 의하면 堯, 舜, 禹는 모두 黃帝에게서 나왔으며 堯가 죽자 그 4대 손자 舜이 이어받고 舜이 죽자 그 4대 조부 禹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堯와 禹는 모두 백년의 장수를 누렸다 한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공자는 논하지 않았는데, 司馬遷은 감히 써내었으니 그 오류가 크다고 본 歐陽修는 공자의 견해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²²⁾ 歐陽修의 이러한 회의 정신은 후대 진위를 분별하는 학풍을 계도하고 原始史料를 수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히 金石學과 目錄學, 譜牒學 등의 발전을 초래하고 宋學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실증을 통해서 오류를 과감하게 교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표적 작품으로 《春秋論》이 있다. 이 문장은 景祐 4년(1037)에 쓰여진 것으로 상·중·하로 된 史論이며, 《左氏》, 《公羊》, 《穀梁》 등 春秋三傳과 《春秋》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일이 불행히 오래고 먼 것에서 나와 두 가지 설로 전해지는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가로되 그 하나의 믿을 만한 것을 따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만한 것을 알고서 따를 것인가. 가로되 그 사람을 좇아 그를 믿으면 된다. 여러 사람의 설이 그와 같다. 군자의 설은 이와 같다. 중인을 버리고 군자를 좇는다. 군자는 박학다문이지만 그 전함이 실수가 없을 수 없다. 군자의 설이 그와 같고 성인의 설이 이와 같다면 군자를 버리고 성인을 따른다.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러함을 알지만 《춘추》를 배우는 자만이 유독 이와 달리한다.²³⁾

歐陽修는 춘추를 역경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 그것은 춘추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지은 《新唐書》와 《新五代史》도 春秋筆法을 본받아 지었다. 이 문장에서 그는 춘추가 믿을 수 있는 유일

한 공자의 문장이고 그 문체가 매우 간결하기 때문에 더욱 추앙하는 듯 하다. 그는 춘추의 經과 傳의 뜻이 같지 않을 때 經을 버리고 傳을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실례를 들어 지적한다. 또 학자들이 공자의 經을 따르지 않고 三子의 傳을 따르는데 관하여 경은 간단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전은 새롭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즐겨 듣고 쉽게 의혹되는 것이라고 오류를 과감히 비판하고 있다. 그는 經에 쓰여진 것을 믿고 經에 말하지 않은 것은 자기도 모른다고 하여 經文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春秋或問》은 《春秋論》과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或問’이란 어떤 사람이 묻는다는 의미이다.

혹자가 춘추는 어찌서 은공에서 시작되어 희린에서 끝나냐고 묻는데, 가로되 나는 모르겠소. 묻는 자가 말하길 이는 학자가 마음을 다 쏟은 것인데, 무엇을 모른다 말인가. 가로되 춘추가 일어나고 그치는 것을 나는 알지만 그대가 묻는 것은 시종의 뜻이니 나는 모르오. 내가 이것에 마음을 쓰는 바가 없소. 옛날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는데 쓰이지 않자 그곳을 떠나 제후국으로 갔는데, 또 쓰이지 않자 곤궁하게 돌아왔다. 또한 늙어서 처음 책을 쓰는데 시를 얻으니 관저 편에서 노송에 이르기까지고 서를 얻으니 요전에서 비서까지였고 노나라의 사기를 얻으니 은공에서 희린까지여서 마침내 그것을 산정하고 그 앞에 멀리 떨어져 성인이 책을 지으니 족히 세상을 모범 삼을 따름이다. 먼 것에 밝히기 어려운 것을 궁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얻은 바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²⁴⁾

위 문장은 관점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묻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歐陽修는 가상의 묻는 자와의 문답을 빌어 《春秋》에 대하여 말하고 그 經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주지하였다. 歐陽修는 《春秋》를 《易經》보다 더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春秋》를 실용적인 매우 훌륭한 문장으로 인식하였다. 《新唐書》와 《新五代史》 역시 《春秋》의 필법을 계승하여 편찬한 것이다.

22) 蔡世明, 《歐陽修의生平與學術》(文史哲出版社, 1970), 94쪽 參照.

23) 《歐集·春秋論上》: 事有不幸出於久遠而傳乎二說, 則奚從? 曰, 從其一之可信者, 然則安知可信者而從之? 曰, 從其人而信之可也. 衆人之說如彼, 君子之說如此, 則舍衆人而從君子. 君子博學而多聞矣, 然其傳不能無失也. 君子之說如彼, 聖人之說如此, 則舍君子而從聖人. 此舉世之人皆知其然, 而學《春秋》者獨異乎是.

24) 《歐集·春秋或問》: 或問, 《春秋》何爲始於隱公而終於獲麟? 曰, 吾不知也. 問者曰, 此學者之所盡心焉, 不知何也? 曰, 《春秋》之起止, 吾所知也. 子所問者, 始終之義, 吾不知也, 吾無所用心乎此也. 昔者, 孔子仕於魯, 不用, 去之諸侯, 又不用, 困而歸. 且老, 始著書. 得《詩》自《關雎》至于《魯頌》, 得《書》, 自《堯典》至於《費誓》, 得魯史記, 自隱公至於獲麟, 遂刪修之. 其前遠矣, 聖人著書, 足以法世而已, 不窮遠之難明也, 故据其所得而修之.

《泰誓論》은 《泰誓》에 관한 글로 《泰誓》는 《書》 중의 한 편이다.

서에서 칭하길 상나라가 처음 여를 정벌했다는 것으로 주나라에게 죄를 씌웠다. 여를 정벌한 자는 서백인데, 서백이 제후를 정벌하고 직사가 되고 여를 정벌하여 승리하였다. 상나라 사람이 이미 그것이 제정하기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싫어하였다. 서백으로 하여금 밝게 그 신되지 못한 형상을 보이고 상나라와 함께 왕이라 칭하길 지금까지 10여년이다. 상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히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그 태사와 원로 신하라 섬기며 마치 할아버지 윤미자의 무리와 같이하였다. 또한 묵묵히 서로 자세히 보며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니 이는 어찌 인정에 가까운 것인가? 이로부터 그것을 말하여 서백이 명을 받아 왕이라 칭한 게 10년이라 한 것은 잘못된 설이다.²⁵⁾

《泰誓》는 今文과 古文으로 전하는데, 古文 《泰誓》는 상·중·하 세 편으로 되어 있고 東晉 梅賾가 편찬하였다. 今文 《泰誓》는 淸 江聲과 孫星衍 등이 《史記》와 《尚書大傳》에 의거하여 완성한 것이다. 《書·泰誓·孔氏傳》에서 武王이 紂王을 정벌하는 이야기를 서술할 때 孔穎達이 疏를 달았는데, 原文 첫 구인 ‘惟十有一年’을 두고 文王과 武王 두 왕의 紀年の 合數라고 하였다.²⁶⁾ 이에 대하여 歐陽修는 文왕이 살아생전 왕이라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년을 바꾼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11년은 武王이 즉위한 후 11년이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을 두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진실을 구하려는 고증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으로 부정확한 사료와 불충분한 증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을 통하여 그 오류를 과감히 교정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25) 《歐集·泰誓論》: 《書》稱商始咎周以乘黎, 乘黎者, 西伯也. 西伯以征伐諸侯爲職事, 其伐黎而勝也. 商人已疑其難制而惡之, 使西伯赫然見其不臣之狀, 與商并立而稱王, 如此十年, 商人反晏然不以爲怪, 其父師老臣, 如祖伊微子之徒, 亦默然相與熟視而無一言, 此豈近於人情邪? 由是言之, 謂西伯受命稱王十年者, 妄說也.

26) 《武成》篇云, 我文考文王, 誕育天命, 以撫方夏, 惟九年, 大統未集. 則文王以九年而卒也. 《無逸》稱文王享國五十年. 至嗣位至卒, 非徒九年而已. 知此十一年者, 文王改稱元年至九年而卒, 至此年爲十一年也.

(2) 《新唐書》와 《五代史記》의 體例

歐陽修는 《舊唐書》에서 중복된 것을 없애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新唐書》를 편찬하였다. 그는 《新唐書》에서 紀, 志, 表 등의 부분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正史編纂體例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新五代史》 역시 歐陽修 개인의 단독 편저로서 《新唐書》와 함께 그의 中國史籍史上的 중요한 지위를 가늠케 한다. 歐陽修는 이 두 부의 史書를 통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직접 실천하여 本紀와 義例를 創立하였고, 表와 譜를 부활시켰으며, 志의 체제 등을 개선하였다.

다음은 《舊唐書》와 《新唐書》, 《舊五代史》와 《新五代史》의 체례를 비교한 <표2>와 <표3>이다.

	《舊唐書》	《新唐書》
本紀	20권	10권
志	30권	50권
表	0권	15권
列傳	150권	150권
총	200권	225권

<표2>

	《舊五代史》	《新五代史》
本紀	61권	12권
志	12권	0권
列傳	77권	45권
考	0권	3권
世家 및 世家年譜	0권	11권
四夷附錄	0권	4권
총	150권	75권

<표3>

歐陽修는 《新唐書》에서 ‘志’와 ‘表’를 매우 중시하여 편수를 늘렸는데, 《舊唐書》에는 없었던 《儀衛志》, 《選舉志》, 《兵志》를 새로 써넣었고 그 중 《兵志》를 첫 편으로 두었다. 《選舉志》와 《兵志》는 당 왕조의 과거 제도와 병법제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食貨志》는 5권을 증편하여 《舊唐

書》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회 경제 관련 사료를 조리 있게 보존하였다. 《地理志》는 당 왕조의 지리 연혁을 서술함에 있어서 官府의 설치와 物資의 분포, 水利의 흥폐 상황을 기재하여 《舊唐書》에 없는 자료들을 보충하였다. 《天文志》와 《歷志》는 《舊唐書》의 3배 이상의 편폭으로 늘려 당대에 유행한 일곱 종의 역법을 기재하고 역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唐代的 역법의 수준을 반영하였다. 《藝文志》 역시 《舊唐書·經籍志》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당 현종 개원 시기 이후의 저작들을 상당수 보충하였다. 柳宗元和 李白의 저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表’ 역시도 《舊唐書》에는 없던 부분인데, 唐 왕조의 연대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北宋 시기에 《舊唐書》보다 《新唐書》가 더욱 훌륭한 사서로 인정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체재와 문체 및 내용 등에서 월등히 완성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新五代史》는 中國 正史 가운데 유일한 개인 편수 史書로서 歐陽修 자신의 저술 의도가 돋보이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宋史·歐陽修傳》에 의하면 그는 군주를 살해하고 왕조 교체가 빈번했던 혼란의 오대시기를 통탄하며 난신적자들이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史書를 저술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舊五代史》에 비해 편폭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내용 면에서 崇儒復古의 정치사상과 공자의 《春秋》 필법을 계승한 褒貶의 정신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 중 ‘列傳’에서 《家人傳》, 《臣傳》, 《死節傳》, 《死事傳》, 《一行傳》, 《唐六臣傳》, 《義兒傳》, 《伶官傳》, 《宦者傳》, 《雜傳》 등의 제목을 써서 죽은 자의 충성심을 등급화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志’ 대신 ‘考’의 형식을 써서 《司天考》, 《職方考》로 써, 《舊五代史》의 《天文志》와 《郡縣志》를 대신하였다. 이 역시 오대가 난세임을 인식하여 ‘禮’로써 史書 編修에 임한다는 자세를 알 수 있다. ‘세기’와 ‘연보’에서 오호십국을 나열하고 조리 있게 정리하여 《舊五代史》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新五代史》는 《舊五代史》에 비해 史料 면에서 약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歐陽修가 ‘簡’함을 숭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료들을 열거하는 대신 포괄의 의의를 담을 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大事와 要節만

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3) 簡略한 敘述

歐陽修는 이상에서와 같이 체제적인 면과 동시에 서술의 방법적인 측면을 고심하였다. 그는 문장 이론에서 ‘簡易有法’을 주장하는데, 이는 史書의 서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尹師魯墓誌銘》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료가 문장을 짓는 데 있어 간단하고도 법도가 있다. 박학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고금을 통틀어 알고 《春秋》에 뛰어났다.²⁷⁾

尹師魯는 歐陽修와 정치적 문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로 歐陽修가 洛陽留守推官 시절 그에게 古文의 기초를 배웠다. 여기에서 계발을 하여 歐陽修가 문장에 실천하게 되어 고문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²⁸⁾ 따라서 두 사람은 뜻을 같이한 동행자였기에 운사로의 죽음은 歐陽修에게 너무나 비통한 일이었음이 당연하다. 尹師魯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墓誌銘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고 歐陽修 역시 흔쾌히 수락을 하여 이 문장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평소 尹洙와 절친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歐陽修가 春秋筆法을 써서 지나치리만큼 간결하게 大節만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그 가족들의 불만을 샀다. 그러자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자신의 ‘簡易有法’의 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尹師魯를 위한 墓誌銘을 애써 그러한 방식으로 썼으며 ‘簡易有法’이 바로 본 문장의 주제가 됨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간결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우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절절히 배어 들어 있는 것은 바로 성공적으로 ‘簡易有法’을 실천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27) 《歐集·尹師魯墓誌銘》: 師魯爲文章, 簡而有法. 博學強記, 通知古今, 長于春秋.

28) 《範文正公集·卷六·尹師魯河南集序》: 洛陽尹師魯, 少有高識, 不逐時輩, 從穆伯長游, 力爲古文, 而師魯深於《春秋》, 故其文謹嚴, 辭約而理精, 章奏書議, 大見風采. 士林方聳慕焉, 遽得歐陽永叔, 從而大振之, 由是天下之文一變, 而其深有功於道歟!

‘師魯’라고 부른 대목이 짧은 문장 안에 열일곱 차례나 나오는 것 등 그 외의 수사적인 방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與杜祈論祁公墓誌書》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어리석은 제가 보기에 墓誌文은 韓舍人의 행장을 쓰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
다. 그러므로 저의 글이 간략하여 대절만을 기록하여 멀리 전해지기를 기대하는데,
아마도 효자된 자식들의 뜻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알아주었던 은혜에 보답하며 기록하는 데 마음을 다하면 되므로 다시 (제
가 보낸 글을) 재단하고 택할 것을 청합니다. 범공 집의 신각은 그 아들이 제멋대
로 보태고 빼내었으니 다시 글을 써서 밝혀 후대 사람이 家集을 믿게 하려 하는 것
을 면할 수 없었다.²⁹⁾

이는 모두 墓誌銘은 반드시 ‘簡易有法’의 원칙하에 쓰여져야 하며 또 그러한 문
장이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論尹師魯墓誌銘》에서
‘문자가 간략하고 대절만을 기록하니 오래 멀리까지 전할 것을 기약한다(文字簡略,
止記大節, 期於久遠)’라고 한 것은 문장이 간단하면서도 전체적인 줄거리를 장악
해야만 후대에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즉 소재를 잘 선택하여
재단함으로써 流暢하고 융통성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술한 객관적인 역
사 기술과 평가와 더불어 이러한 ‘簡易有法’의 특징 등으로 인해 歐陽修의 문장은
春秋筆法을³⁰⁾ 크게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內殿崇班薛君墓表》는 薛奎의 아우인 薛塾을 위해 지은 글로 慶曆 元年(1041)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簡易有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함
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옛날의 이른 바 현인, 군자, 공신, 열사들의 銘으로써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그 말이 간단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후세에 쇠함에

29) 若以愚見, 誌文不若且用韓公行狀爲便, 緣修文字簡略, 止記大節, 期於久遠, 恐難滿孝子意, 但
自報知己, 盡心於記錄, 則可耳, 更乞裁擇. 範公家神刻, 爲其子擅自增損, 不免更作文字發明,
欲後世以家集爲信.

30) 杜預, 《春秋左氏傳·序文》: 發傳之體有三而爲例之情有五, 一曰微而顯, …… , 二曰志而晦,
…… , 三曰婉而成章, …… , 四曰盡而不汙, …… , 五曰懲惡而勸善, …… .

이르러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의 말을 안 믿을까 봐 염려하여 문장을 번잡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행위 사적을 갖추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까 봐 걱정하여 그랬던 것이다.³¹⁾

薛塾은 薛奎의 동생이며 薛奎는 歐陽修의 장인이다. 歐陽修는 이 묘표를 매우
간단하게 써서 문장이란 꾸미고 복잡하게 써서는 안 되며 간단하고 쉽게 써야 한
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아울러 문장 안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를 간략하게 하고
대절만을 써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이처럼 구양수는 《春秋》를 계승하여 기본적으로 ‘簡’을 숭상하는 방법을 추구
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문장관은 史書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4.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歐陽修는 《春秋》와 《史記》를 계승한 역사가이자
문학가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春秋筆法의 ‘微言大義’와 ‘褒
貶’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신의 史觀을 정리하였고 編修 과정에서 체재를 중시하고
‘簡而有法’의 문학기론을 적용시켰다.

본고에서는 지엽적인 실례를 들어 歐陽修가 편수한 《新唐書》와 《新五代史》
가 기존의 史書와 다른 의의를 지니는 것에 주목하였다. 歐陽修는 史書 편찬에 중
요한 의도를 두었고 그에 수반하여 체재를 정비하고 내용의 구성도 효과적으로
재단하였으며 하나의 글자도 신중하게 써서 포핍의 정신을 담아내었다. 아울러 史
書에서 뛰어난 文才를 담아내었기 때문에 더욱 뚜렷한 역사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대문호 구양수가 편수한 史書인 《新唐書》와 《新五代史》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초월하여 훌륭한 문장으로서도 재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재

31) 予考古所謂賢人君子功臣烈士之所以銘見於後世者, 其言簡而著, 及後世衰, 言者自疑于不信,
始繁其文而猶患于不章, 又備其行事, 愉恐不爲世之信也.

와 내용면에서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차이를 검토하고 歐陽修의 文才가 史書의 문장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이는 歐陽修의 史家로서, 文章家로서의 지위를 재확인시키고 중국 고대 문장이 편협적인 文學의 범주로만 이해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歐陽修繼承《春秋》和《史記》의 春秋筆法, 表現出“微言大義”和“褒貶”精神. 他整理唐朝歷史和五代混亂的歷史情況. 他很重視客觀史料和褒貶意義, 取舍選擇重要史料, 採用有合適的體列, 應用“簡而有法”的 文學理論.

關鍵詞: 二十四史、歐陽修、新唐書、新五代史、春秋筆法、微言大義、褒貶.

< 參考文獻 >

歐陽修, 《新五代史》, 中華書局, 2008.
 《二十四史-簡體橫排平裝本》, 中華書局, 2006.
 王欽若, 《冊府元龜》, 江蘇古籍, 2006.
 李承信, <歐陽修的 史家的 면모>,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2집, 2004.
 顧永新, 《歐陽修學術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3.
 班 固, 《新五代史》, 中華書局, 2002.
 高海夫 主編, 《唐宋八大家文鈔校注集評》, 三秦出版社, 2000.
 王水照, <北宋的文學結盟與尙統的社會思潮>, 《復旦大學學報》, 1999년.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中華書局, 1999.
 朱 剛, 《唐宋四大家的道論與文學》, 東方出版社, 1997.
 宋 祁·歐陽修, 《新唐書》, 中華書局, 1997.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92.
 蔡世明, 《歐陽修的生平與學術》, 文史哲出版社, 1980.
 陳芳明, <宋代正統論的形成背景及其內容>, 《食貨月刊》 第一卷, 1971.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8. 7. 15	2008. 8. 1	2008. 8. 16	2008. 9. 20	2008. 9. 30

< 中文提要 >

歐陽修編修中國正史“二十四史”之中兩部《新唐書》和《新五代史》。雖然已經有《舊唐書》和《舊五代史》，但是歐陽修的這兩部史書認為中國正史對中國史籍史上貢獻很大。這本論文里面重視肯定以歷史學和文學方面的貢獻，通過講究《新唐書》和《新五代史》的特點把握歐陽修的歷史觀和對於史料的態度。